

|어린이, 초등 전학년|

푸른 동시 놀이터 13

〈길고양이 릴리 아가씨〉

김이삭 지음 | 푸른책들 펴냄



‘푸른문학상’ ‘서덕출문학상’ ‘우리나라 좋은 동시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고, 여러 도서관과 초등학교의 방과후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를 써온 김이삭 시인의 동시에는 일상을 생생하게 비추면서도 일상 너머의 더 깊은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통찰력이 있다. 『길고양이 릴리 아가씨』는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웃음과 위안을 주는 45편의 시를 모아 펴낸 동시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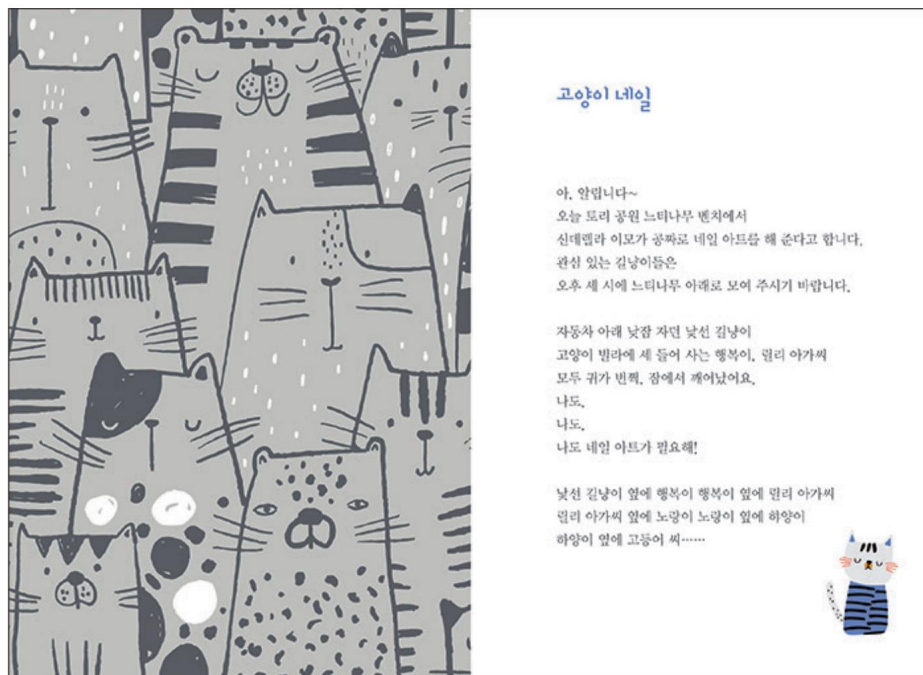
『길고양이 릴리 아가씨』에는 시인이 ‘자주 거니는 들판, 골목, 길, 바닷가에서 만나는 길고양이와 사람들을 마주하며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시인의 시간이 녹아 있다. 그 속에는 솔직담백하고 따스함이 가득한 길 위의 우리들의 이야기가 스며 있기도 하다.

읽기 전 활동

1. 길에서 고양이를 만난 적이 있나요? 고양이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람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2. '릴리'는 길고양이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길고양이에게도 이름을 짓고 그 의미를 소개해 보세요.
3. 뒤표지의 책 소개 글을 읽고, 『길고양이 릴리 아가씨』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동네의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어떤 가게와 건물이 있고, 사람과 동식물이 있는지 소개해 보세요.

읽기 중 활동

- 1-1. 「굴」을 읽고, 굴과 닮은 것에는 또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세요.
- 1-2. 과일이나 채소를 하나 정하고, 비유법을 활용하여 「굴」의 형식으로 시를 써 보세요.
2. 「푸른 고래 가족이니까요」를 읽고, 우리 가족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지 동식물이나 다양한 사물로 빗대어 소개해 보세요.
3. 「몽돌」을 읽고, 몽돌이 왜 '가끔은 슬픈'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읽은 후 활동

1. 인상 깊은 시를 골라 필사하고 낭독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가 왜 인상 깊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2. 「딸 부잣집 분홍 공주」에 등장하는 ‘둘째 이모’는 어릴 적 해보지 못한 것을 어른이 되어서 마음껏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른이 된다면 지금은 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보세요.
3. 「농기구 요양원」의 호미, 낫, 도리깨, 삼태기, 지게와 「여행을 떠나고 싶은 세탁기」의 세탁기는 오랜 세월 일을 한 뒤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오래 된 물건을 소개해 보세요.
4. 「이모의 꿈」을 읽고, 우리 집안 어른들의 꿈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여러분의 꿈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운 아프리카

“파나야,
상추에 아프리카 초원 나무
한 그루가 들어 있네.”
“오빠 정말이네!”

파나와 베르베르가
엄마 일하는 한국 식당에서
삼 싸 먹다 소리쳐요.

“파나야, 이 작은 일도
꿈 새기고 사는데
우리도 고향 잊지 말자.”
“응 오빠, 애기 그만하고
고기 싸 먹자.”

이젠
배운 파김치도

아주 잘 먹고
떡볶이 맛도 알지요.

서러움 중에서도
마음이 마음을 밀어내는 게
제일 서럽다는 것
일곱 살인데도 알아요.

